

『효풍(曉風)』과 해방기 민주주의들의 풍경 —염상섭의 『효풍』 연구

유 예 현*

요약

본고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담론들이 폭발했던 해방기에 염상섭이 소설을 통해 탐색했던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구명하고자 한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절정기의 일본에서 유행했던 염상섭에게 사상과 문학적 지향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그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것이었다. 염상섭은 해방 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문제화했다는 점에서, 본고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효풍』의 정치성과 윤리성을 고찰함으로써 염상섭의 작가의식과 문학세계에 접근하고자 한다.

작가가 보기에 해방기는 다양한 담론들이 민주적으로 분출되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과 정치활동이 사랑방에서 가두로 진출하지 못하고, 폭력과 테러로 인해 민중이 정치로부터 격리된 어두운 시대였다. 거리에서 환멸을 느끼며 사랑방에 스스로를 유폐한 김판식 노인의 형상은 염상섭의 이러한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효풍』은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는 공적 영역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파행적 공론장을 대체하는 공간으로서 구락부나 댄스홀 등에 대한 소설적 탐색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좌우대립의 이분법적 냉전논리에 갇힌 모습이 아니라, 해방기에 분출했던 민주주의론의 공존과 경쟁 양상이 드러난다. 그러나 작가는 ‘민주 경찰’로 대변되는 냉전 민주주의 통치 기구의 감시와 검열로 인해 자발적 결사체가 형성되지 못하는 국면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염상섭은 현실과 민중의 일상에서 피리된 채 이식된 민주주의, 교양적 과시만 남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비판하였다. 『효풍』에 제시된 ‘조선학’은 어떠한 독재에도 항거하는 저항의 가치와 함께 통합의 가치를 내세우며 조선의 현실에 맞는 민

* 덕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주의를 주창했던 신민주주의의 이상과 근거리에 놓인다.

주제어: 염상섭, 효풍, 민주주의, 신민주주의, 해방기, 구락부, 조선학

1. 서론: 염상섭과 민주주의
2. 공론장이 부재한 거리, 사랑방에 유폐된 민주주의의 꿈
3. 구락부'들'에 대한 탐색과 그 실패
4. '조선학' 구상과 그 의미
5. 결론

1. 서론: 염상섭과 민주주의

“아나키스트는 소위 무정부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오해이다. 진정한 아나키스트는 독점적인 강권을 배격하고 균등한 민주주의란 말이다.”¹⁾ 단주 유림(旦洲 柳林)은 아나키스트로서 임시정부에 참여한 이채로운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가 환국하면서 남긴 위의 말은 그야말로 사회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리고 아나키스트 김산(金山)에 따르면 식민지 시기에 아나키즘이 호소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조선인들이 오직 “독립과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궁극적으로는 ‘자유’ 한 가지만을 열망했기 때문이었다. “광범위한 민주주의를 향한 충동은 조선에서는 그야말로 강렬한 것”이었고, “우리들 사이에는 민주주의가 남아돌 정도로 많았다.”²⁾

1) 『민족총의로 출발한 정부정도를 발견-유림 국무위원 소신 피력』, 『동아일보』, 1945.12.12.
2) “비록 달성하려는 방법은 달랐지만, 모든 조선인들은 오로지 두 가지를 열망하고 있었다. 독립과 민주주의. 실제로 그것은 오직 한 가지만을 원하는 것이었다. 자유. (중략) 무정부주의가 그토록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광범위한 민주주의를 향한 충동은 조선에서는 그야말로 강렬한 것이었다. (중략) 우리들 사이에는 민주주의가 남아돌 정도로 많았다.”(님 웨일즈·김산, 송영인 역, 『아리랑-조선인 혁명가 김산의 불꽃 같은 삶』, 동녘,

는 그의 회고 또한 아나키즘을 광범위한 ‘민주주의’라는 개념 안에서 사유했음을 의미한다. 이때 ‘민주주의’를 수식하는 “남아돌 정도로 많았다”는 표현은 민주주의에의 열망의 정도를 강조하는 수사(修辭)에서 나아가 하나가 아닌 다양한 민주주의‘들의 존재를 상상해보게끔 한다.³⁾

주지하듯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해방을 맞이한 한반도의 공론장에서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다채로운 논의가 들끓었다.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을 꿈꾸는 다양한 정치적 가능성이 논의되었고, 제각기 나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주도권을 둘러싼 경합을 벌였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러한 논의의 전면에는 항상 해방기 시대적 화두로 부상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것이다. 해방 조선의 최대 당면 과제로 “조선민족의 철저해방과 민주주의에 의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건설”⁴⁾을 꼽은 안재홍(安在鴻)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방 후에도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 건설이라는 문제는 민족 문제와 함께 좌우를 막론한 정치적 주체들이 공유하는 주요 목표였다. 말하자면, 독립운동 시기와 해방기 정치적 주체들

2005, 190-191면.)

3) 상호합의된 것처럼 사용되곤 하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단일하지 않은 민주주의‘들이라는 점은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이상록, 『1960-7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의 민주주의의 담론』, 『역사와 현실』 77, 한국역사연구회, 2010; 박지영, 『복수의 ‘민주주의’들-해방기 인민(시민), 군중(대중) 개념 번역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김봉국, 『해방 직후 민주주의 공론장의 인과 밖』, 『감성연구』 16,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8.) 특히 해방기 민주주의들의 폭넓은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역사학자 김정인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김정인, 『민주주의의 눈으로 본 역사학』, 『역사교육』 126, 역사교육연구회, 2013; 『해방 전후 민주주의‘들의 변주』, 『개념과 소통』 12, 한림과학원, 2013;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책과함께, 2017; 『한국 민주주의 기원의 재구성』, 『기억과 전망』 3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8 참조.) 그는 민족주의에 내재된 종속 변수가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의 궁극적인 지향이자 내적원리로서 민주주의를 간주하면서, 민족주의나 민중주의가 정통론적 역사인식의 위상을 차지했던 한국 역사학의 연구 풍토 속에서 민주주의가 본격적인 역사회의 대상이 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염상섭의 글에서 추출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이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 또한 이러한 경향과 크게 무관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4) 『중첩은 협동기관-국민당수 안재홍씨 답』, 『동아일보』, 1945.12.26.

에게 민족의 해방이라는 민족주의적 목표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역시 매우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민주주의 연합국의 승리는 민주주의를 전후 세계의 대세로 부각시켰다.⁵⁾ 이에 따라 해방 직후 한반도의 공론장에서도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와 ‘소련식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주주의론이 범람했다. 이처럼 해방기가 민주주의에의 열망이 폭발했고, 다채로운 민주주의론이 공존한 시기였다는 사실은 해방기 정치·사상·문화적 지형도를 보다 정밀하게 그리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민주주의라는 동일한 기표 아래의 다양한 기의들을 드러내는 작업’⁶⁾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해방기 염상섭(廉相涉) 문학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시한다. 해방 후 염상섭 역시 다양한 소설과 글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언급했다. 본고의 논의는 해방 후 염상섭의 민주주의에 대한 언술이 해방 직후 민주주의‘들’이 분출했던 맥락과도 밀접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해방 후 염상섭의 첫 장편소설인 『효풍』은 『취우』와 더불어 해방 후 염상섭 문학의 핵심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되며, 해방 후 저작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조명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간 『효풍』 연구는 민족주의적 중도파의 입장과 분단극복 가능성의 서사화에 대한 규명에 주목해 왔다. 작품에 나타난 이념의 실체를 중도파 지식인의 그것으로 규명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민족의식의 측면에 강조점을 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⁷⁾

5) 김봉국, 앞의 논문, 140면.

6) 이상록, 앞의 논문, 41면.

7) 대표적으로 김재용은 염상섭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된 전기적 사실을 실증적으로 재구하고, 이에 기반해 염상섭 문학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조하였다.(김재용, 「분단을 거부한 민족의식-8.15직후 염상섭의 활동과 『효풍』의 문학사적 의미」, 『국어 국문학 연구』 20, 원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999.) 서형범의 경우, 염상섭의 『재회』 등에서 제3의 선택항으로서의 중립의 이념향의 다층적 모습이 드러나지만, 『효풍』의 중심 서사가 병직과 해란의 연애담에 있으며, 중립주의자로서의 김관식이나 조정원의 모습은 단편적 에피소드로만 처리될 뿐 중심 서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 병직을 통해 언명된 민족 중심주의가 당위적

그러나 해방기에 대한 작가의 비판이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를 민족의식의 차원으로 수렴시키는 시각은 『효풍』 이후의 작품들에 대하여 세대 묘사에 매몰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⁸⁾

탈식민주의의 관점을 취한 연구는 민족주의가 내장하고 있는 한계를 의식하면서, 『효풍』에서 ‘미완의 탈식민적 상황⁹⁾이라는 제3세계의 운명을 읽어내는 확장된 시각을 보여준다. 그러나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탈식민주의의 문제에만 주목하는 것 또한 당대 현실의 복잡성과 작가의 근본적 문제의식을 단순화하는 것일 수 있다.¹⁰⁾ 민족주의로 환원되지 않는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 방식도 있었다는 점이 간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국주의와 식민지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담론을 읽어낼 필요성이 제기된다. 『효풍』의 병직이 제시한 ‘조선학’은 해방기에 가장 활발하게 개진된 제3의 민주주의론으로서 ‘신민주주의론’, 즉 조선의 현실에 알맞은 ‘조선식 민주주의’ 논의들을 연상시키는 국면이 있다. 일본 제국으

인 데 머문다는 점 등이 작품에서 ‘중립주의’는 그 편린만을 드러우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하였다.(서형범, 『염상섭 『효풍(曉風)』의 중도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찰, 『한국학보』 30-2, 일지사, 2004, 65면.)

- 8) 김재용, 앞의 논문, 200면; 김경수, 『혼란된 해방 정국과 정치 의식의 소설화염상섭의 『효풍(曉風)』론』, 『외국문학』 53, 열음사, 1997, 234면.
- 9) 김병구, 『염상섭 『효풍』의 탈식민성 연구』, 『비평문학』 33, 한국비평문학회, 2009, 72면.
- 10) 이때 민족주의적 시각을 넘어 ‘제3의 노선’으로서의 중간과의 특성을 강조한 연구들은 주목을 요한다. 김종욱의 논의는 중간과로서의 면모를 인정하면서 『효풍』의 서사가 혈통과 언어적 동일성에 기반한 배타적 민족주의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차원에서의 국민이 내포하는 비균질적인 상황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혈통적, 이념적, 언어적 다양성의 토대 위에서 조선학을 만들려는 정신사상적 고투에 주목하는 것이다.(김종욱, 『해방기 국민국가 수립과 염상섭 소설의 정치성』 『효풍』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60, 한국의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5, 104면, 115면.); 이양숙의 경우, 해방철학을 주창한 엔리케 두셀과 호미 바바의 탈식민주의의 관점을 논의에 차용하였는데, “민족(조선)과 국가(국민)를 둘러싼 세력이나 이념의 갈등”을 넘어서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의식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언급할 만하다. 『효풍』을 “민족/반민족이라는 기존의 구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횡단적 주체”들의 ‘이질적 연대와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트랜스모던한 서사로 독해하는 것이다.(이양숙, 『트랜스모던 공간으로서의 서울, 1948년 염상섭 『효풍』의 현대적 의미』, 『도시인문학연구』 10-1,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8, 72-74면, 80-86면.)

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이라는 새로운 제국에 의해 분단의 위협을 맞이했던 상황 속에서 많은 민주주의 논의들이 민족주의적 요소를 내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것이었다. 당대에 제시되었던 신민주주의들 또한 공통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만 환원되지는 않는다.

한편, 본고가 『효풍』에 나타난 작가의 근본적 문제의식으로서 민주주의에 주목하는 것은 아나키즘적 지향을 보여주는 초기 문학으로부터 소위 쇄말주의적 일상으로 작가의식의 후퇴를 보여준다고 논의된 『효풍』 이후의 작품들까지 연속적인 시각 위에서 고찰하기 위한 시론의 성격을 갖는다.¹¹⁾ 염상섭의 초기 문학과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및 생디칼리즘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학들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¹²⁾ 가령 『삼광』¹³⁾에 실린 『이중해방(二重解放)』이라는 글에는 일체의 봉건적인 구습과 자본주의적인 질서를 부정하는 정신, 즉 모든 권위로부터 해방된 자유

-
- 11) 『효풍』 이후 풍속의 차원으로 퇴화한 것으로 평가되어온 염상섭 문학의 정치성과 윤리의 문제를 새롭게 평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안서현, 『『효풍』이 붙지 않는 곳-염상섭의 『무풍대』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9, 한국현대문학회, 2013; 정종현, 『195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정치와 윤리』 『젊은 세대』,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62, 동악어문학회, 2014 등.)
- 12) 이러한 논의들은 막스 슈티르너나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등을 경유한 아나키즘적 접근과, 그의 문학 및 문장에서 나타나는 제국주의를 넘어서려는 해방적 지향이나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 여성해방론을 밝히고 있다.(한기형,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 수용과 탈식민적 태도-잡지 『삼광』에 실린 염상섭 자료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43, 한민족어문학회, 2003; 이종호, 『일제시대 아나키즘 문학 형성 연구-『근대사조』 『삼광』 『폐허』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박현호, 『염상섭과 '조선문인회』』, 『한국문학연구』 43,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2; 최인숙, 『염상섭 문학의 개인주의』,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권철호, 『『만제전』과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적 정치미학』, 『민족문학사연구』 52, 민족문학사학회, 2013; 이종호, 『염상섭 문학과 사상의 장소-초기 단행본 발간과 그 맥락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6, 한민족문화학회, 2014; 이경민, 『염상섭의 자기혁명과 초기 문학』, 『민족문학사연구』 60,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6 등.)
- 13) 잡지 『삼광』의 성격과 이에 실린 염상섭 자료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한기형, 앞의 논문, 77-82면, 90-92면.)

로운 개인과 유토피아에 대한 지향이 담겨있다.¹⁴⁾ “모든 권위로부터 민주 테모크라시(democracy)에 철저히 해방하여야” 한다는 대목은 염상섭에게 있어 아나키즘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하여 암시해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서두에 제시했던 아나키스트 유립과 김산의 말을 다시 떠올린다면,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적 지향에도 절대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옹호가 내재되어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염상섭의 문학적 입장이나 『효풍』의 이념적 비전을 민주주의적 통일 민족국가 수립으로 요약한 논자도 없지 않다.¹⁵⁾ 그러나 이때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거나 민족주의의 차원을 강조하면서 부수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함의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최근 염상섭 문학을 민주주의와 관련된 연구가 아나키즘적 지향을 밝히는 연구와 마찬가지로 주로 초기 염상섭에 주목하고 있다면,¹⁶⁾ 『효풍』을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

14) “미후총비(微嗅衝鼻)하는 구도덕의 질곡으로부터 신시대의 신인을, 완명고루(頑冥固陋)한 노부형(老父兄)으로부터 청년을, 남자로부터 부인을, 구관누습(舊慣陋習)의 연벽(鍊壁)으로 웅위(擁圍)한 가정으로부터 개인을, 노동과잉과 생활난의 견벽(堅壁)한 철쇄(鐵鎖)로부터 직공을, 자본주(資本主)의 체적으로부터 노동자를, 전제의 기반(羈絆)으로부터 민중을, 모든 권위로부터 민주 테모크라시(democracy)에 철저히 해방하여야 비로소 세계는 개조되고, 이상의 사회는 건설되며, 인류의 무한한 향상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염상섭, 『이중해방(二重解放)』, 『삼광』, 1920.4.(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 전집』 I, 소명출판, 2013, 72-75면. 이 책의 표기를 따르되, 원문과 대조하여 한자의 오기는 수정하였음. 이하 이 책에서 인용할 경우, 『문장 전집』 권수, 면수로 표기한다.)

15) 김재용, 앞의 논문, 200면; 정종현, 앞의 논문, 120면; 서준섭은 작가의 정치적 입장을 극좌와 극우를 모두 비판하는 중간파의 그것으로 보면서도, ‘민족주의자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민주주의적인 ‘단일 민족 국가에 대한 이상’이 담겨 있다고 판단하였다.(서준섭, 『염상섭의 『효풍』에 나타난 정부 수립 직전의 사회, 문화적 풍경과 그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28, 한중인문학회, 2009, 43면, 56-57면.)

16) 먼저, 한기형은 염상섭이 민주주의·인간해방 정신·민중성과 노블의 기원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했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1920년대 중반~1930년대 초반 염상섭 장편소설의 통속성을 식민지적 상황을 넘어서려는 전략으로 이해한다.(한기형, 『노블과 식민지-염상섭 소설의 통속과 반통속』, 『대동문화연구』 8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황종연은 랑시에르의 이론을 원용하여 『사랑과 죄』를 분석하면서 공동체 내에 어떠한 지분도 없는 사람

지만 염상섭 문학의 최종심급으로 작동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한 이종호의 연구는 본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염상섭 문학에 재소환되는 3.1운동을 선제하는 평형을 중단시키는 힘의 패러다임인 제한권력이자, 절대적 권력으로서의 민주주의의 기획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본고의 문제의식과 통한다.¹⁷⁾ 그러나 민주주의는 보편적·초역사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특수한 현실과 긴밀한 역사적 개념이다. 그것은 제한권력이라는 절대적 권력으로서의 추상적·보편적 개념일 뿐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 특히 해방기 지형도 속에서 진영의 논리에 따라 굴절·진유되었기에 보다 세밀한 검토를 요한다.

본고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 염상섭의 문학 전반을 규정하는 내재적·근본적 원리이자 지향으로서 민주주의 개념에 주목하여 해방 후 염상섭의 첫 장편 『효풍』에 놓인 근본적 문제의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민주주의론이 출현했던 해방기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소설 속에 반영된 민주주의에 대한 작가의 이해와 전망을 섬세하게 읽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소설에 나타난 해방기 공론장에 대한 인식 및 공간적 탐색, 민주주의론의 재현 양상 등을 통해 해방기 염상섭의 현실인식의 향방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들인 “데모스(demos) 없는 데모크라시”를 문제화한, “한국문학에 역사상 처음으로 데모크라시의 정신을 기입”한 작가로 염상섭을 평가하였다.(황중연, 『플로베르, 염상섭, 문학정치-한국 근대문학에 대한 랑시에르적 사유의 시도』, 『한국현대문학연구』 47, 한국현대문학회, 2015, 39면.)

17) 이종호는 염상섭 문학을 규정하는 사건이자 그의 문학에서 지속적으로 현재화되는 혁명의 시간으로 3.1운동을 이해한다.(이종호, 『염상섭 문학의 대안근대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14-124면.)

2. 공론장이 부재한 거리, 사랑방에 유폐된 민주주의의 꿈

1912년부터 1920년까지 8년간 일본에서 유학했던 염상섭은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절정을 이루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문학과 사상을 키워나갔다. 그는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대표적 이론가인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와 교류했고,¹⁸⁾ 민주주의를 세계 개조의 핵심 원리로 받아들인 재일한인유학생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소설이라는 장르를 ‘데모크라시’ 정서에 의하여 발현되어 ‘민중을 위해 제공된 보편성을 지닌 예술로 정의한 것에서도 드러나듯이,¹⁹⁾ 염상섭은 민주주의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소설이라는 장르를 이해했다. 해방 후 산문과 소설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언급했으며, 말년에는 4.19혁명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혁명을 통해 나아갈 길을 ‘민주국가 수립’²⁰⁾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요컨대, 염상섭의 문학·사상적 지향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일본 유학 시절부터 배태되어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해방공간에서 3.1운동의 표상은 저마다의 입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전유되었다.²¹⁾ 염상섭은 자신의 ‘3.19 오사카 독립선언’ 과정을 생생하고도 극적으로 묘사하면서 그것을 서울에서의 33인의 독립선언, 동경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과 동

18) 염상섭, 『횡보문단회상기(橫步文壇回想記)』(전2회), 『사상계』, 1962.11-12.(『문장 전집』 III, 592면, 606면.)

19) 염상섭, 『소설시대=사대사상』, 『조선지평』, 1928.1.(『문장 전집』 I, 676면.)

20) “구래(舊來)의 정치이념과 그 수단과 수법을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니, 성의껏 민주국가를 바로 잡아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겠다는 열의 있는 사람 이외에는 이 일에 참섭(參涉)하지 못할 것이요, 또 참섭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국가 수립을 다시 목표 삼고 나아가야겠다고 개인 사람만이 앞으로의 일뿐이요, 또 그 사람만이 진정한 애국자일 수 있을 것이다.”(염상섭, 『대도(大道)로 가는 길』, 『동아일보』, 1960.4.25.(『문장 전집』 III, 502면.)

21) 정중현, 『3.1운동 표상의 문화정치학-해방기~대한민국 건국기의 3.1운동 표상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3, 한민족문화학회, 2007; 양근애, 『해방기 연구, 기념과 기억의 정치적 퍼포먼스-3.1운동 관련 연극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퀘에 놓고 사유함으로써 자신을 3.1운동 수행자의 일원으로 정위하였다. 이와 함께 문학의 측면에서 3.1운동 표상을 전유하여 한국근현대문학을 3.1운동 이후의 문학으로 호명하였다.²²⁾ “정치적·사회적 모든 방면으로 발전기회를 잃었을 그때” 3.1운동의 정신이 함양되고 발전될 수 있었던, 그리고 그러한 책무를 지닌 유일한 장소는 문학이었다고 강조한 것이다. 주의를 끄는 부분은 “3.1정신은 말할 것도 없이 민족적 조국애의 발로이 지마는 그 시발과 종착은 정의(正義)·인도(人道)의 선양이요, 자유평등의 전취(戰取)인 것이다. 민족자결주의란 약소민족의 정치적 해방이자, 그 의지·의사의 자유해방인 점에 있어 민주주의의 시발이기도 한 것”²³⁾ 이라며 3.1운동의 근본정신을 민주주의 정신에 연결시킨 점이다. 그는 “인생고(人生苦)에서의 해방을 위한 탐구”, “자기해방의 길이요, 해탈의 길”인 문학 정신의 본류가 3.1운동의 민주주의 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또한 횡보(橫步)는 8.15해방을 3.1운동과 함께 놓고 비교·대조한 바 있다. 먼저 3.1운동은 이후 문화정치가 실시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문화정치기에 강조된 민의창달이라는 기치는 신문지법과 검열로 대표되는 식민지 권력의 폭력으로 인해 여지없이 추락했다고 보았다.²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문화정치란 반동정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 이후는 점진적이며 침착한 가운데 거족적 단결이 가능했던 시기였으나, 8.15해방은 분열과 외세영합, “혼란과 타락과 상잔과 살육의 비참”

22) 박정희가 지적한 것처럼 염상섭은 『만세전』 개작을 통해 3.1운동을 재인식하였다. 고려공사 판본이 3.1운동 실패의 역사화에 관한 것이었다면, 해방 후 개작된 수선사 판본은 해방공간에서 작가의 자기비판과 역사인식을 보여주는데, 그 (무)의식은 문단 원로로서 신문학(한국근대문학) 운동의 담당자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정위하고 있다는 것이다.(박정희, 『『만세전』 개작의 의미 고찰·수선사판 『만세전』(1948)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1, 한국현대문학회, 2010, 323면, 325면.)

23) 염상섭, 『기미운동과 문학정신』, 『평화신문』, 1958.3.1.(『문장 전집』 III, 409면.)

24) 염상섭, 『나와 『폐허』 시대』, 『신천지』, 1954.2.(『문장 전집』 III, 251-252면.)

한 무질서만을 야기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서 염상섭이 민주주의의 원리가 내재된 3.1운동에 비추어 해방기를 이해하고 있었고, 해방기의 혼란을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무질서로서 인식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남북 분단이 가시화되었던 1948년 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자유신문』(200회)에 연재된 『효풍』²⁵⁾에서도 해방기는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하는 곳으로 묘사된다. 염상섭이 포착한 해방기 남한의 축소(縮圖) 서울 거리는 활발한 담론들이 정열적으로 분출되고 교류되는 공론장이 아니라, 폭력적인 단체와 군중의 때만이 가득한 무질서한 공간이었다. 여학교 영어선생으로 교편을 잡았던 혜란은 애인 병직이 좌익색채를 지닌 신문사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빨갱이’ 낙인이 찍혀 해고되었고, 현재는 골동품상점 ‘경요각(瓊瑤閣)’에서 근무한다. 해방 이전 혜란의 영어 교사였던 장만춘은 미국인 무역가 베커의 통역, ‘거간 노릇’을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하와이에서 해방 후 귀환한 청년 사업가 이진석은 사적 이익을 위해 남한 단독선거를 지지하며, 혜란을 이용해 대미무역을 하고자 한다. 이 소설에서 친일파와 모리배들만이 ‘해방 덕’을 본 것으로 그려진다.

한편, 혜란 부(父) 김관식은 미국에서 근대적 지(知)와 교양을 습득한 ‘젠틀맨’ ‘노신사’로서, 해방 직후 속물스러운 세태와 타협하지 않고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양심적 지식인이다. 이 소설의 장(章) 제목은 주로 혜란의 입장 및 처지와 관련되어 있는데,²⁶⁾ 유독 9장(章)의 제목인 ‘거리에서’와 10장(章) 제목 ‘서재에서’는 김관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리와 서재는 바로 해방기에 대한 김관식의 인식과 관련된 공간들이다.

공정가격이 없는 해방기 거리의 이발소는 인간의 이기심, 기회주의, 돈만 밝히는 세태와 경제혼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공간이다. 그리고 김관

25) 이 글의 텍스트는 신문연재본을 저본으로 삼은 『효풍』(글누림, 2015)이다. 이하 본문 인용 시 (면수)로 표기한다.

26) 서형범, 앞의 논문, 72면.

식에게 극장 앞 어마어마한 ‘사람의 떼’와 종점의 장사진은 피로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될 뿐이다. 이발사와는 대비되는 구두닦이에 대해 서술자나 김관식 영감이 애정의 시선을 던지기는 하지만, 구두닦이는 당대의 외부 세계를 “자기에게는 아랑곳없는 세상”(154)으로 치부하고 자신만의 양심을 지킨다는 면에서 김 노인과 마찬가지로 해방기의 혼란상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거리를 두는 인물이다. 무엇보다 구두닦이는 역사의 현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대립과 분열이 가득한 거리에서 피로를 토로하며 문사(文士)들의 사교 공간이었던²⁷⁾ 찻집을 찾는 데 실패한 김 영감은 어느 빈대떡집을 발견한다.²⁸⁾ ‘조출한 양복쟁이’, ‘젊은 내외’와 같은 민중들이 자리한 것을 보고 들어간 그곳에서 그는 우연하게도 십여 년 전 잡지사를 경영하며 신진 작가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과 조우한다. 모리배 노릇이나 매문(賣文)을 할 수 없어 빈대떡집을 경영하게 된 주인의 모습이나 “미국 갔다 온 이 하이칼라 노신사” 김관식이 “빈대떡 접시를 앞에 놓고 앉았는”(157~158) 모양은 해방 후 영락한 문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²⁹⁾ “사시미가 싫듯이 비프스틱도 싫어졌고 사쿠라, 모찌가 싫듯이 초콜릿도 싫어졌”(158)다는 김 영감에게는 그나마 옛 문화인과 교류할 수 있는 빈대떡집만이 긍정된다. 그 이유는 그곳이 “조선 사람 정도에 꼭 알맞은 그릴이요 사교장”, 즉 조선 민중들에게 최소한의 소통과 교류,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27) 손유경, 『1930년대 다방과 ‘문사’의 자의식』, 『한국현대문학연구』 12, 한국현대문학회, 2002 참조.

28) “영감은 아까는 다리를 쉬어 가려고 찻집을 찾아도 보았고, 또 해방 전후 한때는 식당이나 찻집 아니면 발을 들여놓지 않았지마는 근자는 발을 뚝 끊었다.”(158)

29) “빈대떡은 병문 친구 계급에서 해방이 되어 당신 같은 문화인 덕에 출세를 했으나 근대 조선의 신문화를 돼지비계에 지저 내서야 될 말요.”(157); “내가 이렇게 영락하기나, 남원이 붓대를 던지고 녹두를 갈고 지짐을 부치거나 가엾긴 일반요마는 비프스틱이나 코코아 맛을 본 지도 벌써 픽 오랬소.”(158)

김관식 영감은 이처럼 우울과 피로를 유발하는 해방기 거리를 멀리하며, 주로 서재와 침방을 겸한 자신의 사랑채에 머문다. 그와 대비를 이루는 박종렬 영감은 우익청년을 데리고 쳐들어와 김 영감을 서재로부터 거리로 끌어내려 한다. UN단도 오기 전 입후보하라면서 그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 잔재의 축들이 정치를 구실로 사욕을 추구하는 것을 반동적인 봉건적 퇴영으로 인식하는³⁰⁾ 김관식 영감은 그러한 청을 단칼에 거절한다.³¹⁾ 저마다 구국애민의 정신을 전유하여 향락과 권세를 누리려는 해방기의 세태에 비판적 거리를 두는 것이다.³²⁾ 이와 같이 노신사 김관식은 민주적이어야 할 정당정치와 선거가 사적 이기심으로 인해 타락하고, 폭력으로 물들어 있음을 개탄하고 비판한다. 특히 난립하고 있는 청년단들이 ‘소위 지도자의 노예’ 노릇을 하면서³³⁾ 시민들을 위협하고 강매를 하는 해방기의 풍경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한다.³⁴⁾ 그가 보기에 해방기 길거리는 청년 패거리들에 의한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선거를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박종렬 영감과 청년단들의 모습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선전되었던 선거,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대의민주주의에 내재한 모순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욱이 병직이 길거리에서 테러를 당한다는 설정은 작가가 해방기 거리를 폭력적으로 인식했음을 잘 보여준다. 소설에서 병직을 테러한 인물 혹은 집단이 누구인지는 끝내 비

30) “기가 폭 까부라지게 거세(去勢)를 해 놓고 간 놈이 일인 아닌가? 그러기에 나는 청년이나 노년이나 그런 쓸개 빠진 위인이야말로 일제 잔재라고 생각하네마는 그 더께가 떨어지기 전에 또 한 더께가 씌일 모양이니 걱정이지!”(169)

31) “거리야야 늘 나가네. 오늘도 나가 보았지만 눈에 보이느니, 눈에 들어가느니 먼지뿐이데! 쓰레기통 속을 헤매느니보다는 이 한 칸 방이 내게는 더없는 선경이거든!”(162)

32) “응, 퇴패, 퇴영은 안 되겠지만 석 잔 술과 한 칸 방에 숨으려는 것을 퇴패, 퇴영이라면, 서른 잔 술과 열 칸 방에 향락과 권세를 차지해 보겠다는 것은 구국애민의 정치도(政治道)란 거랍니까?”(164-165)

33) “청년사업은 청년을 정쟁의 와중(滿中)에 끌어넣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건만 본말이 전도된 게 지금의 청년 운동 아니요.”(168)

34) “아무 청년단이든지 청년단 이름만 팔면 일반 시민이나 가정부인이 위협을 느끼고 무슨 무리한 청이라도 들으리라고 생각하게끔 된 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라는 말이요.”(167-168)

밀로 남는데, 이는 우익청년, 좌익청년, 그리고 싹패가 전혀 구분되지 않는 상황과 밀접하다.

이러한 면모는 염상섭이 일본 유학 중 직접 경험했던 다이쇼 데모크라시와는 대조되는 것이었다. 본질적으로 천황제였던 일본 사회에서 민주주의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대내적으로는 개성과 인권의식이 꽃피었던 시기로 기록된다.³⁵⁾ 일례로, 염상섭은 ‘현정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의 정부 탄핵 연설회 등 연설회와 가두 정치를 정열적으로 쫓아다녔던 체험을 고백한 바 있다.³⁶⁾

오늘날같이 정치활동이 사랑방에서 가두로 진출 못 하고 정견발표 입회(立會) 연설은 고사하고 일석(一夕)의 정치 강연조차 들을 기회가 없이 민중과 정치가 완전히 괴리된 때는 없으나 이렇고도 민주주의요, 언론의 자유는 향유되었다는가. 테러는 정치활동을 저해하고 정치인에게 함구령을 하(下)한 형태이며 민중을 정치면에서 철벽으로 격리하여 놓은 결과를 재래(齎來)하였다 하겠다.³⁷⁾

한편, 위의 문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염상섭은 해방 이후 국가 건설 과정에서 만연했던 폭력과 테러에 대해 “민주국가 건설과 자유 획득 및 그 옹호에 있어 우리의 역량을 자의(自疑)케 하며 심지어는 우리의 민족성을 재검토”하게 하는, “비현대적·비민주주의적”이고, “사이비 애국적”인 행

35) 메이지 시대와 쇼와 시대 사이에 끼어 있는 다이쇼 시대는 일본 근대사에 있어 특이한 성격을 지닌다. 다이쇼 시대는 민주주의와 아나키즘이 공존하는 등 사상적으로 가장 자유로웠고, 정당정치가 행해지고, 보통선거의 실시로 정치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등 정치적으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가 발달했으며,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한 시대였다.(한상일, 『제국의 시선-일본의 자유주의 지식인 요시노 사쿠조와 조선문제』, 새물결, 2004, 30-31면 참조.)

36) 염상섭, 『남궁벽(南宮璧) 군』, 『신천지』, 1954.9. (『문장 전집』 III, 280-285면.)

37) 염상섭, 『폭력행위를 절멸(絶滅)하자』(전2회), 『경향신문』, 1946.11.28.-11.29. (『문장 전집』 III, 17-22면.)

위라고 노기서린 비판을 했다. 특히나 “언론·집회·출판의 자유가 억압되고 군주전제의 탄압이 인권 유린에 극달(極達)한 시대가 아니라, “미군정(美軍政)이라 할지라도 서상(敍上)의 자유가 어느 정도로 확보된 민주주의 시대의 금일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 표시의 수단과 기회를 자기(自棄)하고 폭력을 사행(肆行)함은” 봉건적 정치이념이자 일제 잔재라는 것이다.

염상섭에게 다이쇼기 연설회가 일본 부르주아 정당정치와 민중들의 활력에 기반한 대의정치를 맞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³⁸⁾ 해방기 한국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작가가 보기에 해방 공간은 국가 건설의 다양한 담론들이 민주적으로 분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과 정치활동이 “사랑방에서 가두로 진출 못 하고 정견발표 입회(立會) 연설은 고사하고 일석(一夕)의 정치 강연조차 들을 기회가 없이 민중과 정치가 완전히 괴리”된 곳이었다. 광범위한 민중이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정치 집단들은 자신의 정파적 이익에 따라 서로를 적대하면서 폭력과 테러를 자행하는 곳. 결국 “정치활동을 저해”하고 “민중을 정치면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어두운 공간인 것이다. 거리에서 환멸을 느끼며 사랑방에 머물기를 고수하는 김관식 노인의 인물형상은 이러한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3. 구락부‘들’에 대한 탐색과 그 실패

『효풍』에는 ‘공론’, ‘의논’, ‘발론’, ‘논래’와 같은 어휘들이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빈대떡집을 제외하고는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이 부재하다. 전술한바 작가는 사적 탐욕과

38) 이종호, 『염상섭 문학의 대안근대성 연구』, 앞의 논문, 152면.

폭력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해방기 거리를 형상화했다. 정치적 자유를 실현할 공적 영역이 부재할 때, 즉 정치적 행동을 통한 주체화가 불가능할 때, 김관식 영감은 사랑방에 스스로를 유쾌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효풍』은 그 파행적 공론장을 대체하는 다양한 대화적 공간을 상상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점에서 『효풍』에서 형상화된 다양한 구락부들의 존재를 주목해야 한다. 구락부(俱樂部)란 취향과 교양을 공유하는 자율적 개인들이 모인 친밀성의 공동체를 이룬다.³⁹⁾ 그것은 근대적 공론장의 원천으로 간주되는 사교적 친밀성의 공간이나 비밀결사를 지칭하기도 하며,⁴⁰⁾ 일종의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접이지대이다.

먼저, 거리에서 활약하는 청년단의 ‘구락부’(313)인 ‘고려각’은 열린 공론장이나, 공론장을 예비하는 자유로운 대화의 장으로 구현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자기 축 외에 이분자(異分子)가 침입”(314)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는, 배제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닫힌 공간이다. 그럼에도 스파이들은 변성명을 하고 그곳을 파고든다. 의심과 썸패들의 암약만이 가득한 공간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칭 ‘일두양이주의자(一頭兩耳主義者)’(67)라는 중립과 다방골 누님(조정원)집 역시 “조선식 찻집이요 구락부쯤”(64)이라고 서술된다. 인텔리 여성 조정원은 “조선 독립에 ‘이바지’하느라고 좌우정객(左右政客)과 우국지사(憂國之士)에게 위안을 주느라고”(66) 장사를 시작했다고 말한다. 여기서 다방골 누님집은 3장(章)의 제목처럼 그야말로 ‘그들의 그룹’, 즉 취향을 공유하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친밀성의 공동체이자 비밀결사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인다. 좌익 진영인 화순과 그녀 혹은 좌익에 매혹되곤 하는 중도적 인물 병직에게 그곳은 친밀성을 토대로 한 사교장이기 때문이다. 형사들에게 쫓기는 지명수배자 이동민은 소

39) 이정석,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자의 정치학:이효석의 『공상구락부』와 최인훈의 『GREY 구락부 전말기』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8, 우리어문학회, 2014, 416면.

40) 이정석, 위의 논문, 417-424면.

설 상에서 한 번도 실제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는 바로 냉전의 논리와 반공주의가 극대화되는 미군정하에서 ‘인민’ 혹은 ‘시민’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목소리와 얼굴을 잃은 자이다.⁴¹⁾ ‘불온한’ 인물 이동민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공간 역시 이곳이다. 또한 이곳은 “이북으로 가자는 논쟁”(105)이 이뤄지는 공간이며, 이후 화순과 함께 북행한 동무 평산 아주머니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북행과도 밀접한 의미를 지닌다. 요약하자면, 다방골 누님집은 “좌우익 할 것 없이” “정계의 동향이니 사회의 풍문이니 하는”(66) 다양한 의견을 가진 자율적 주체가 토론하고 정치적 행동을 도모하는 공간, 즉 일종의 공론장의 대체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적인 것은 이 공간에서 인물들이 두 번이나 연행된다는 사실이다. 초반부에는 이동민으로 인해 박병직, 김혜란, 최화순, 조정원이, 후반부에는 최화순과 박병직의 북행으로 인해 김혜란과 조정원이 유치장에 끌려가게 된다. 한 연구자는 『효풍』의 삼각관계의 성립과 재편을 조장하는 근본적 계기를 경찰의 검속 및 연행, 유치장 수감 등 경찰 권력이 작용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⁴²⁾ 수만의 아마추어적 탐정 활동과는 대조적으로 병직을 단 사흘 만에 체포해온 강력한 경찰 권력을 보여주는 이 서사는 미국의 후원과 경찰 조직의 지지를 통해 강력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있었다는 점과 흥미로운 유비를 이룬다.⁴³⁾ 이 점은 이곳이, 나아가 남한 전체가 감시체계와 통제의 자장 내에 놓여 자유롭지 못한 공간임을 암시한다. 특히 해방 후 경찰사찰은 중도파에 집중되었다고 알려져

41) 이 소설 속에 얼굴을 드러낸 바 없는 이동민이라는 인물의 존재방식은 ‘비가시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반사회주의적인 지배권력에 의해 강요된 사회주의자의 존재는 부재를 통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사회주의자의 존재적 표상조건으로서 ‘비가시성’에 대해서는 이해령, 『감옥 혹은 부재의 시간들』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자를 재현한다는 것, 그 가능성의 조건, 『대동문화연구』 6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71면, 75면 참조.)

42) 조형래, 『『효풍』과 소설의 경찰적 기능-염상섭의 『효풍』 연구, 『사이間SAI』 3,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7, 192-193면.

43) 조형래, 앞의 논문, 195-196면.

있다.⁴⁴⁾ 이처럼 소설 상에서 자발적인 비밀결사의 형성은 지속적인 미행과 감시로 인해 계속해서 방해받고 지연된다. 그리고 이것은 냉전의 논리에 따라 노골화한 억압의 양상에 대한 알레고리적 비판을 수행한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들을 감시하고 연행하는 경관이 자신을 ‘민주 경찰’(75)이라고 자임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투철한 직업의식의 소유자로 그려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그로 인해 자유로운 토론과 정치적 행동이 가로막히게 된다. 그것은 식민지권력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에 북행을 감행한 병직이 식민지 시기부터 아버지와 내통해온 경찰 권력에 의해 체포되는 설정은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미군정이 일제의 지배기구와 친일 관료, 경찰 등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사실, 즉 식민지 검열 및 통치기구의 지속성과 관련된다. 제한적이거나 자유를 허용한다는 문화정치가 허울이었던, 이 소설에서 민주 경찰 권력으로 대변되는 민주적 관료 제도와 통치 기구를 내세워 합법적으로 민중의 의지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치적 자유가 가로막히는 지점이 예리하게 포착된다.

화순과 병직이 언론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미군정의 적대적인 언론정책에 의해 좌익세력과 관련된 언론인의 활동이 억압되는 장면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반공주의를 최우선 과제로 앞세우는 냉전 민주주의가 민주적 토론과 합의 과정보다 파시즘적 통치로 이를 수 있음이 은연중에 암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라는 개인과 집단의 자유가 제한된 채, 제도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결국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폭로하는 효과를 지닌다. 따라서 이 소설은 민중에 의한 통치에서 동떨어진 억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 없는 민주주의’의 모습인 것이다.

44) 『해방후 경찰사찰 ‘중간파에 집중’, 『한겨레』, 1994.7.30.

“중석은, 홍삼은 얼마나 실어 내가는지 모르시는 모양이로군? 홍삼은 일제시대에는 미쓰이(三井)에게 내맡겼던 것이죠? 이번에는 어떤 ‘미국 미쓰이’가 옵니까?”

화순이는 이 청년이 무역 관계의 일이면 잘 안다는 말에 기가 나서 콧속 쏘는 것이다.

(중략)

“미스 최의 말이 실상은 조선 사람의 말입니다.”

옆에 덩덤히 앉았던 병직이가 비로소 한마디 거든다.

“아, 당신두? ……조선 사람이 모두 A신문사 같은 의사, 미스 최와 같은 의견을 가졌다는 말씀요?”

베커는 놀라는 심정이다.

“미스터 베커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내가 미스 최처럼 또는 조선 사람 전체가 이북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요. 하지만 일제시대에는 좌우익의 구별이 없이 함께 단결하였던 것을 당신들은 생각하여 봐야 할 것이요. 지금 미스 최가 말한 그런 점에 가서는 좌우가 없이 의견이 일치하거든요.”

병직이의 이 말에 베커는 병직이의 얼굴을 뵈듯 다시 치어다본다. B신문이라 하면 으레 자기편이요 군정을 지지하는 신문이니까 별로 관심도 흥미도 아니 가지고 들을 만한 신기한 말도 없으려니 하였던 베커는 병직이의 이 말에 고개를 기울이고 멍멍히 앉았는데.

“무어 그런 정치담은 그만두고 유쾌히 술이나 먹고 댄스나 하십시다.”

(중략)

“하여간 그런 것은 오웁니다. 미국은 해방자 아니요? 일본과 다른 점을 믿으시오.”(밑줄은 인용자, 141~142)

많은 논자들이 주목했던 ‘스왈로 회담’ 역시 특기할 만하다. 인용한 위의 대목은 최화순, 박병직, 베커, 가네코가 배석하여 상징적인 국제 ‘공개 회담’을 벌이는 장면이다. 여기서 스왈로 댄스홀은 환락적인 공간인 한편

으로, ‘스왈로 회담’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접이지대로 기능한다. 반공주의자인 베커는 이때 처음 좌익계열 A신문사 기자인 화순과 직접 대화를 나눈다. 화순은 미국이 중석과 홍삼을 실어나가는 것을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과 동일시하면서, 해방자이자 동시에 점령자였던 미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공박한다. 외세에 결탁한 국내 모리배들과 반민족적 매판자본에 대해서도 비판한다.⁴⁵⁾ 이와 함께 화순이 “일제가 남기고 간 무거리”(146)라며 가네코를 멸시하는 면모는 일제와 반민족자에 대한 적대를 여실히 드러낸다. 문화적 교양을 소유한 젠틀맨의 형상과 무역가로서 자본주의자의 형상이 결합된 베커, 그리고 가네코에 대한 화순의 공격은 민주주의의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강조했던 좌익의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인 베커는 화순의 공격에 대항하여 일본과는 다른 해방자로서의 미국의 성격을 강조한다. 그런데 미국인 베커를 포함하여 이 작품 속 미국인들을 구제국주의 세력이 떠난 자리에 등장한 새로운 제국주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교양을 지닌 젠틀맨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는 해방 전부터 문명적 삶의 모델로 제시되었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문화를 표상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그는 정치적 이념이나 실천보다는 문화적 측면이 강조된 인물인 듯 보이지만, 베커가 문득 보여주는 빨갱이에 대한 거부감 속에는 이미 반공의 논리가 기입되어 있다.⁴⁶⁾ 화순과 병직의 공격을 ‘좌우협공’이라고 칭할 만큼 베커는 좌익과 우익의 이분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냉전의 현실화에 따라, 좌우 이념 대립과 무관하게 쓰였던 자유민주주의라는 기표에 반공적 의미가 부과되기 시작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45) “대관절 당신 나라에서 상인이나 이권 운동자가 몇십 명 몇백 명이 나와 있나요? 그분들과 모리배와는 격리를 시켜 놓았던가요?”(143)

46) “아니, 빨갱이가 좋을 것도 없지만 미스 김은 내가 잘 알아요! 사권 지는 며칠 안 돼도 조선 여성으로, 아니 현대 여성으로 존경할 인격자라고 나는 믿는데 빨갱일 리가 있나요!”(117)

다.⁴⁷⁾ 그가 미군정 세력에 빌붙어 남한 단독선거를 지지하는 모리배 이진석과 어울리고, 그에게 이용당하는 것처럼 그려지는 것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이 단정을 지지하는 우파에게 이용되는 한편, 그것과 일종의 공모관계에 놓인다는 점에 대한 알레고리로 볼 수 있다.

화순과 병직의 공격에 수세에 몰린 베커는 무엇보다도 좌익뿐만 아니라 조선의 여론의 대부분이 미군정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병직의 말에 아연실색한다. 염상섭은 일찍이 다른 글에서 “데모크라시 사상은 ‘만인의 총의(總意)’가 과불급(過不及) 없이 표백(表白)되는 때에 성취’된다고 언명한 바 있다.⁴⁸⁾ 이러한 주장은 대의를 통해 민중 주체의 의지를 양도하지 않는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radical) 입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보면, 냉전에 의해 축소되고 왜곡된 미군정하 자유민주주의는 진정한 여론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만인의 총의’가 표백되어야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이상과는 꽤 먼 거리에 있다.

이처럼 베커가 체현하고 있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에는 자유와 평화, 공공선 등 문명적 삶의 태도의 의미와 함께 배타적인 냉전기 자유민주주의의 의미가 착종되어 있다. 미국인 베커가 화순의 팔짱을 끼고 나가는 모습에 대한 댄스홀 군중들의 “흥! 민주주의다!”(146)라는 비아냥은 민주적 토론과 합의나 정치적 실천과는 무관하게 방종과도 같은 자유와 소비자본주의의 차원에 머무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조소와 폄하일 터이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군중들의 삶에 녹아들지 못하고 추상적인 이해로 걸돌고 있다. 수만과 함께 양식집에 방문했을 때 해란 또한 냉전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미심장한 조소를 던진다. 청년단에 들지 않으면 지목을 받는다는 데 대한 “민주주의 시대란

47) 박찬표,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냉전 자유주의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 후마니타스, 2007, 380-381면; 이승원, 『민주주의』, 책세상, 2014, 99-100면 참조.

48) 염상섭, 『문학상의 집단 의식과 개인 의식』, 『문예공론』, 1929.5. (『문장 전집』 II, 74면.)

다르군!”(174)이라는 해란의 반응 역시 자유민주주의라는 기표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공공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대신 배제와 적대, 전체주의적 폭력이라는 의미만 기입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반어적 조소 일 것이다.

“당신 같은 분부터 빨갱이와 대다수의 여론의 중류·중추(中流·中樞)가 무언지를 분간을 못 하니까 실패란 말요! 우리는 무산독재도 부인하지마는 민족자본의 기반도 부실한 부르주아 독재나 부르주아의 아류를 굽어모은 일당독재를 거부한다는 것이 본심인데 그게 무에 빨갱이란 말요? 무에 틀리단 말요?”

“그야 물론이죠 독재란 금물이요. 잘 알겠습니다.”

베커도 조선 청년의 소리를 듣는 것에 흥미가 나는 듯이 유쾌한 낯빛으로 맥주병을 들어서 병직이에게 권한다.

이야기가 이렇게 되니까 화순이는 병직이의 의견에 다소 불만을 느끼며 가만히 듣고만 있다.

“자, 그러면 제일차 스왈로 회담은 이것으로 폐회합니다…….”

(중략)

“난 무식해서 무슨 말씀들인지 귀 뜯 소경입니다마는 그만하시고 입가심으로 내려가 댄스나 하십시다.”(밑줄은 인용자, 145)

“진정한 여론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선봉은 대개가 빨갱이 아니”(145)냐는 베커의 반공 논리를 비난하는 병직은 한반도의 우익과 좌익, 나아가 우익끼리의 분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지적한다. 미국을 추종하는 모리배들만을 포섭하고 나머지를 적대하는 냉전의 논리에 대한 비판이다. 인용한 대목이 여론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중도파를 빨갱이로 낙인 찍어 배제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다는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⁴⁹⁾ 특기할 점은 “대다수의 여론의 중류·중추(中流·中樞)”라는 병직의 표현이 해방 정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진되었던 중도의

신민주주의론들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⁵⁰⁾

당대의 신민주주의는 단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것이었다. 신민주주의자들은 세부적으로는 다른 주장을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며 반목했던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동시에 부정하면서, 통합적 가치를 주장했다. 그리고 조선의 특수한 정세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3의 민주주의론을 제기했다. 인용문에서 무산독재와 함께 “부르주아 독재나 부르주아의 아류를 굽어모은 일당독재를 거부”하는 병직에게 있어 민주주의란 어떤 종류의 독재에도 항거하는 저항의 가치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대에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부르주아 독재 모두에 대한 비판과 부정은 백남운(白南雲)⁵¹⁾, 안재홍(安在鴻)⁵²⁾, 배성룡(裴成龍)⁵³⁾ 등 해방기 신민주주의

49) 장세진은 병직과 해란이 빨갱이로 오인되는 점을 지적하며, 『효풍』의 기획을 우파들에게 끊임없이 빨갱이로 오인되었던 중간파의 위치를 ‘중류’, ‘중추’라는 이름으로 구제하고, 이들의 정치적 견해가 갖는 의의를 복원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장세진, 『재현의 사각시대 혹은 해방기 ‘중간파’의 행방』,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2017, 235면.)

50) 김정인, 『해방 전후 민주주의자들의 변주』, 앞의 논문, 208면.

51) 마르크스주의 사회경제학자인 백남운의 ‘연합성 민주주의론’의 요체는 무산계급이 중심이 되어 양심 있는 일부 유산계급과 연합한 좌우연합정권을 구성하고, 민주정치/민주경제/민주문화/민주도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신민주주의를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 간의 계급 대립이 없는 연합성 신민주주의 단일민족국가 수립하자는 것이다.(김인식, 『백남운의 연합성 신민주주의와 무계급성 단일민족국가 건설론』, 『중앙사론』 27,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08, 169-170면; 김정인, 『민주주의의 눈으로 본 역사학』, 앞의 논문, 344면.)

52) 중도우파 안재홍은 해방 직후 국가건설방안으로서 ‘신민족주의론’과 함께 ‘신민주주의론’을 내세웠다. 그의 ‘신민족주의’란 서구 제국주의 국가의 배타적인 우익 민족주의와 함께 민족과 민족주의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의 국제주의 노선모두를 지양한 것으로, 내부로는 사회성원의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고, 외부로는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열린 민족주의였다. 그의 ‘신민주주의’는 차별 없는 균등사회의 토대 위에서 초계급적 통합민족국가 수립을 지향했다.(이윤갑, 『안재홍의 근대 민족주의론 비판과 신민족주의』, 『한국학논집』 5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4; 김정인, 『민주주의의 눈으로 본 역사학』, 앞의 논문, 345면.)

53) 배성룡이 주창한 ‘신형민주주의론’은 그가 1947년 10월 김규식을 중심으로 중도세력이 망라된 조직인 민족자주연맹의 노선을 대변하는 이론가로 참여하면서 체계화한 것이다. 미국과 소련에 대한 중립적인 균형외교를 주장하면서 주창한 ‘신형민주주의론’은 미국과 소련의 민주주의를 절충한 조선식의 민주주의를 의미했다.(김기승, 『배성룡의 신형민주주의 국가상』,

자들이 공유했던 것이었다. 아직 식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고, 새로운 점령군 밑에서 분단을 앞둔 상황이므로 미군정에 대해서 병직은 화순과의 의견을 일치할 보인다. 그러나 그는 무산독재 또한 비판할 뿐 아니라, 화순-베커, 화순-가네코가 대립할 때마다 농담으로 상황을 중재한다는 점에서 우익이나 민족반역자에 대한 적대를 강조하는 화순과는 그 입장이 다르다. 이와 같이 통합적 가치를 강조했던 병직의 면모는 그가 신민주주의의 지향을 가진 인물이라고 추측하게 한다.

무엇보다 스왈로 회담 대목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화순/베커/병직이 각각 좌익 진영의 진보적 민주주의/우익 진영의 자유민주주의/중도 진영의 신민주주의의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좌우대립의 정치 논리에 긴박된 모습이 아니라 해방기에 분출했던 민주주의론의 공존과 경쟁 양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우파의 자유민주주의와 좌파의 진보적 민주주의, 그리고 중도파의 신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해방공간은 그야말로 민주주의라는 “최고의 혁명적 기표”를 전유하기 위한 각축장이었다.⁵⁴⁾ 이와 동시에 해방기는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해 방식과 지향이 공존할 수 있었던 얼마 안 되는 짧은 순간이기도 했다. 스왈로 회담은 해방기 남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에서 자유민주주의론이 지배적이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⁵⁵⁾ 냉전 구도 속에서 ‘과소재현’되었던 중도파의 신민주주의론을 재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⁵⁶⁾

『한국사 시민강좌』 17, 일조각, 1995, 81-82면, 86-87면.)

54) 박지영, 앞의 논문, 54면.

55) 김봉국, 앞의 논문, 158면.

56) 장세진은 중간파 지식인, 특히 중간파 언론인에 대한 방대한 연구를 통해 ‘문화적 중간파’의 미디어와 재현 전략의 측면에서 『효풍』을 조명하였다. 특히 재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간파들과 함께 ‘조선/일본의 사이에 놓임으로써 ‘민족’의 관점에서 분명히 규정하기 힘든 존재들을’ 재현하고자 했던 염상섭의 창작 경향을 지적하였다.(장세진, 앞의 논문, 233-240면.) 장세진은 백남운, 안재홍, 배성룡, 이갑섭 등 중간파 지식인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창된 ‘신민주주의’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가 ‘중간파’와 중간파의 매체에 좀 더 방점이 찍힌 것이라면, 본고는 ‘민주주의’ 자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중간파’나 ‘중도주의’라는 개념에서

또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이 장면에서 무산독재를 거부하는 병직에게 불만을 갖는 화순의 모습도 여과 없이 드러나며, 베커는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화순에 의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며,⁵⁷⁾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에는 무관심한 가네코의 목소리도 그대로 담긴다. 또한 “일본 말로라도 수작을 직접 하여 의사 소통이 되는 것만” “시원하고 유쾌하”였다는 병직이나, “조선 청년의 소리를 듣는 것에 흥미가 나는 듯이 유쾌한 낯빛”을 보이는 베커의 모습은 소통의 자유에 대한 열망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 대목은 공론장에서 여론이 자유롭게 공유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감론을막이 가능한 댄스홀이 그것을 얼마간 대체하는 장면인 것이다.

베커는 소통의 자유에 따른 희열에 힘입어 “조미친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며 “조선 문제를 연구하는 구락부”를 조직하자는 ‘발론’으로까지 나아간다. 그러나 베커가 없는 자리에서 병직과 화순은 일제하 친일 민간 단체인 “신판 녹기연맹이나 만들까!”(148)라며 그러한 ‘구락부’의 형성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는 미국이 전폭적인 원조를 통해 선거 등의 민주주의 제도를 신생 독립국에 이식해 가는 당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베커에 대한 거리두기는, 미완으로 끝난 식민 잔재의 청산, 미국의 원조에 따른 경제적 종속의 심화, 정치 활동 및 민주적 의제의 급격한 제약으로 요약되는⁵⁸⁾ 냉전기 자유민주주의와 제3세계 신생 독립국의 운명을 예감하는 작가의 날카로운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효풍』은 다양한 구락부‘들’을 등장시키면서 공적 영역의 부재를 대체할 공간에 대한 모색의 과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 경찰로

민주주의로 연구의 초점을 옮김으로써 염상섭의 작가의식과 문학세계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함이다.

57) 이양숙, 앞의 논문, 85-86면.

58) 이승원, 앞의 책, 100면.

대표되는 미군정기 통치 권력에 의해 자발적 결사체의 형성은 방해받는다. 그러한 국면을 포착하는 작가의식은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새로운 통치 질서의 분할과 치환에 대한 대응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4. '조선학' 구상과 그 의미

진정한 자발적 결사체의 형성이 지연되는 상황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병직이 북행을 선택해 실종되었을 동안 머물렀던 공간이다. 병직은 부친 박종렬이 몰래 소유한 별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진다. 박종렬은 일제시대 도회회원을 지낸 친일파이자, 해방 후에는 양조회사를 경영하며, 청년 운동을 후원하는 등 정치적 야망도 드러내는 인물이다. 해방덕을 본 모리배들이 차지한 진고개 별장 지대에 위치한 그의 별장은 미국인 브라운과 결탁해 손쉽게 불하받은 적산가옥이다.⁵⁹⁾ 병직의 월북 비용의 출처 또한 그의 아버지였다는 점은⁶⁰⁾ 병직의 '조선학' 선언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점과 함께 매우 낭만적이며 이상화된 전망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⁶¹⁾ 그러나 미국과 결탁하여 취한 친일파의 적산 별장을 비밀 이지트로 전유한 것에는 은밀한 저항이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가 요청한 경찰 공권력에 의해 병직의 월북 기도가

59) 그 별장은 “브라운을 끼고서 구락부를 하나 만들자는 핑계로 손쉽게” 차지하였으나 “적산집을 또 차지하였다”(375) 소문이 날까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두었던 곳이다.

60) 병직의 동지로부터 돈을 마련해달라는 병직의 편지를 전해 받은 헤란은 이진석으로부터 돈을 마련하였다는 점도 특기해 둘만 하다.

61) 기존 연구에서 병직의 이념적 모색과정이 밝혀지지 않은 채 별안간 중도주의의 이념적 정향을 드러내는 측면은 비판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봉건적 인습을 깨친 새로운 여성상의 한 전범인 화순이 아니라, 병직의 난봉을 인내하는 순종적 여인의 면모를 지닌 헤란이 연애담의 최종 승자가 되는 것 또한 이러한 성격을 보여준다는 것이다.(서형범, 앞의 논문, 77-79면.)

좌절되면서 그러한 저항 역시 실패로 돌아간다. 북행의 좌절은 1948년 4월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진행하며 통일정부 수립을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고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던 서사 밖의 시점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신민일보』 구류사건으로 인해 『효풍』의 연재가 중단된 바 있고, 이후 미군정 법령 88호에 의거해 『신민일보』가 폐간 조치를 당하는 등 언론 탄압 정책이 노골화되었던 마지막 연재 무렵에는 검열을 피해가며 글쓰기를 해야 했던 상황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⁶²⁾

결론 부분에서 되돌아온 병직은 김관식 영감의 서재에서 “워싱턴이고 모스크바고 같 것 없”(427)다면서 ‘조선학’을 연구하겠다고 선언하며, 그것은 국수주의가 아닌 애국주의라고 강변한다. “모스크바에도 워싱턴에도 아니 가고 조선에서 살자는 주의”(428)로서의 애국주의란 냉전 반공주의가 전유한 애국주의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연구하고자 하는 조선학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실체를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선 삼팔선이 어떻게 하면 소리 없이 터질까”하는, 즉 평화적 통일이라는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연재 중단 이후 서사의 방향이 당대 정세의 변화나 창작자의 자기 검열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병직이 구상한 조선학이란, 구체적인 형상이 마련되지는 않고, 당위적인 선언에 그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추상적으로 선언된 병직의 조선학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염상섭의 다른 글들을 경유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1949년 『신천지』에서 실시한 설문에서 염상섭은 조선의 특수성에 알맞은 민주주의를 요청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찬반 문항에 대해 “민주주의가 좋으나고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합한 민주주의의 현

62) 염상섭의 구류로 인해, 『효풍』은 1948년 5월 3일 105회(‘변심’(4)) 이후 중단되었다가 5월 10일 106회(‘봉변’(1))가 다시 연재되었다.(장세진, 앞의 논문, 241-243면.)

실의 민도(民度)에 알맞은 민주사상의 조치와 실천으로써 주의(主義)나 사상으로서 유리하여 있지 않고 곧 생활내용이 되도록 온(穩)·타당(妥當)하게 육성하는 방도를 차리며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⁶³⁾ 민주주의가 좋은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합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방기에 존재한 복수의 민주주의에 대한 염상섭의 인식을 보여주는바, 복수의 민주주의 가운데서도 민도(民度)에 적합한 민주주의여야 하며, 그것이 사상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생활에 침투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당신이 보고 들은 민주주의 풍(風)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묻는 항목에서는 “다만 직역(直譯)과 모방(模倣), 구격(具格)만 맞춘 허울 좋은 탕탕 민주주의 풍이라든지 구미풍(歐美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선거장, 국회, 거리, 가정 어디에서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해방기 현실 속에서, ‘구미풍’ 민주주의의 모방이나 ‘구격’, 제도만 갖춘 민주주의의 허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작가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기 염상섭이 추구한 민주주의란 바로 식민과 탈식민의 경험 속에서 외세의 영향을 견제하고, 조선의 현실에 맞는 민주주의 노선을 구상했던 조선식 민주주의와 상통하는 것이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박병직의 ‘조선학’은 다분히 해방기의 신민주주의를 연상시킨다.

우파와 좌파의 민주주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로 인해 해방정국을 갈등으로 이끌었던 한편에서, 소위 중도파로 분류되는 이들은 신민주주의론을 통해 통합의 가치를 주장했다. 또한 신민주주의자들은 어떠한 독재에도 항거하는 저항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조선의 특수한 정세에 적합한 독자적인 민주주의론을 제기했다. 해방기에 쏟아졌던 서구의 민주주의론이 조선의 현실에 부적합하다는 판단 위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조선식

63) 염상섭, 『설문』, 『신천지』, 1949.10.(『문장 전집』 III, 156-157면.)

민주주의를 주창하였던 것이다. 해방 후 한국 사회를 세계사의 보편적 지평 위에서 파악하면서도, 과거 식민의 경험 그리고 해방 후 미소집령이라는 현실의 특수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⁶⁴⁾

박병직이 무산독재와 부르주아독재 모두를 비판했다는 점,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염상섭이 우리에게 적합한 민주주의를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그가 신민주주의의 공통적인 논의에 호응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를 동시에 비판한 제3의 사상인 아나키즘의 자장 안에 놓여있었던 초기 염상섭 문학이 해방 이후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함께 부정한 신민주주의에 공명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소설 속에서 박병직과 김관식의 대화가 김관식의 사랑채 서재에서 진행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김관식 영감은 거리의 폭력을 멀리하고 사랑채 서재에 머물며 세계를 관찰해왔다. 본래 사랑채란, 손님을 맞이하고 학문을 논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공적인 성격을 내포한 공간이었다.⁶⁵⁾ 김관식 영감이 이진석이나 강수만을 사랑채로 들이지 않으려 노력했던 맥락을 고려한다면, 영감이 병직을 사랑채 서재에 들여 대화하는 장면에서 사랑채는 비로소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게 된 셈이다.

한편, 병직은 혜란에게 아버지의 원조에서 벗어난 지점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이에 동조한 혜란은 이튿날 베커에게 미국 유학을 중지하겠다고 기별한다. 혜란의 미국 유학 중지 선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커가 혜란과 응접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장면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소설의 초반부에서 경요각의 백자동 병풍을 전해주러 온 혜란은 베커와 응접실에서 티타임을 갖는다. 오키나와에서 종군한 경험이 있

64) 김봉국, 앞의 논문, 158면.

65) 류수연, 『응접실, 접객(接客) 공간의 근대화』와 소설의 장소이광수의 『무정』과 『재생』을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11, 춘원연구학회, 2017, 9면.

는 ‘이국청년’ 베커는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조선관과 비슷한 인식을 보여주며,⁶⁶⁾ 문화제국주의적인 시선 위에 헤란을 세워둔다. 자신과 같은 이국 총각과 단둘이 있으면 무섭지 않느냐는 베커의 물음에 헤란은 폭력적인 미군은 싫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젠틀맨”, “여자의 인격을 아는 민주주의 국가의 신사”(92)는 믿고 존경한다고 말하여 베커를 부끄럽게 만든다.

베커가 자리한 응접실은 서구 근대적 교양과 관련된 사교 공간이다. 한국에서 응접실은 사랑채의 기능을 대체하는 공간이었으나, 교육과 공적 업무 수행과 같은 기능은 제거되고 접객의 기능이 강화된 곳이라는 점에서 사랑채와는 구별된다.⁶⁷⁾ 영어를 매개로 사회에 진출한 여성인 헤란에게도 응접실이 개방되었다는 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는 면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진석이 베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헤란을 이용하고 있고, 그러한 점을 이미 헤란과 베커 모두 인식하고 있다. 더구나 헤란이 종종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그것은 진정한 여성의 자기 해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베커의 저택에서 일하는 조선 아낙네의 경멸과 양공주라는 아이들의 놀림을 오해라고 볼 수만은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김관식 영감조차 베커를 “깨끗한 교양이 있어 보이는 부드러운 청년”(410)으로 판단했듯이, 헤란 역시 베커를 “어디까지든지 문화인이요 신사”(344)로 판단하며, 그의 미국 유학제외에 마음이 흔들린다. 물론 베커의 제안이 선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치장에서 나와 앓고 있는 헤란에게 전달된 그의 위문품에서 “실상은 구제품인지 배급품인지가 연상”(417)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미국의 원조를 상징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당대 미군정이 ‘원조’의 ‘호의’적 성격을 선전했던 사실과 기묘한 유틸리티를 이루는 것이다.⁶⁸⁾ 따라서 헤란의 미국 유학 포기를 적극적으로 평가

66) 이양숙, 앞의 논문, 81면.

67) 류수연, 앞의 논문, 10면.

한다면, 미국 남성이라는 정치·사회적 인정질서에 대한 부정, 나아가 미국의 원조에 대한 거부로도 독해할 여지가 있다. 이 장면을 염상섭이 오사카 독립선언으로 체포되었다 풀려난 후,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기수인 요시노 사쿠조 교수의 학비 제공 제안을 뿌리쳤던 일화와 겹쳐 읽으면 더욱 문제적이다.⁶⁹⁾ 요시노 사쿠조는 민본주의자로서 조선의 자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지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적인 지배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었다.⁷⁰⁾ 베커와 그 뒤에 자리한 미국의 원조 역시 진정한 해방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혜란의 경우 교양 없고 전체주의적이며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수만과 같은 청년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문화적 교양과 관련된 민주주의의 측면을 강조했던 인물이었다. 문화적 교양으로만 남은 민주주의나 서구적 모방에 그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염상섭의 비판을 생각한다면, 혜란은 주체적인 자기해방과 함께 부정적인 민주주의풍을 극복해 가는 인물로 생각된다. 혜란은 스왈로 회담 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테러를 당한 병직을 간호하면서 참한 며느리로 인정받는 대목은 봉건적 가족주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혜란의 수동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끊임없이 자신을 동양의 선녀로 신비화하는 베커에게 매혹을 느꼈던 혜란은 결론에 와서 미국인의 원조를 거부하고 박종렬로부터 독립하려는 병직과 새 살림을 다짐하면서 성장하는 것으로 그러지는 것이다.

68) 『미국은 조선착취에 흥미 없다-민주주의 자유의 역용은 포고령 위반』, 『동아일보』, 1946.9.1.

69) “당시 일본에서 유수한 법학자로 동제대(東帝大) 교수요, 우리 유학생 간에서도 지한파(知韓派)라 할까, 이해와 동정을 가졌다는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박사가 회유수단으로이던지 학비를 제공한다는 것도 일언지하에 물리치고, 요코하마(橫濱) 항(港)에 있는 복음인쇄소(福音印刷所)의 직공으로 자칭하여 노동자로 나섰다.”(염상섭, 『횡보문단회상기(橫步文壇回想記)』((전2회), 앞의 글, 592면.)

70) 한상일, 앞의 책, 363-369면, 376-377면, 388면 참조.

병직은 봉건적 며느리상에 부합하는 헤란의 순종적인 면에 불만을 갖고, 자꾸만 “감연히 인습을 타파하고 봉건적 가족주의에 반항하고 나온”(241) 화순에게 매혹되었다. 이러한 병직의 면모를 생각해 볼 때, 헤란은 베커의 원조를 거부한 이후에야 병직과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봉건적 구습, 제국의 인정질서, 남성의 폭력적 시선이라는 다양한 억압기제로부터 겹겹으로 결박된 조건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이중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헤란은 병직과 함께 조선학을 연구하고 구현할 주체로 호명되는 것이다. 따라서 헤란은 자아의 각성을 통한 자기해방과 여성해방으로 나아가는 인물로 평가해볼 수 있다.⁷¹⁾

요컨대, 이 소설의 결론은 ‘아버지의 그늘’에서의 해방을 선언하는 병직의 모습과 미국인 베커의 그늘을 자각하고 그것과 결별을 선언하는 헤란의 모습을 중첩해 놓고 있다. 친일파였고 미군정 통치기구와도 관련이 있는 가부장적 아버지로부터의 해방이란 헤란과 마찬가지로 병직 안팎을 중층적으로 포위하고 있는 다양한 억압기제를 인식한 결과 획득될 수 있는 “내적 해방과 외적 해방, 영(靈)의 해방과 육(肉)의 해방, 정치생활의 해방과 경제생활의 해방”⁷²⁾의 동시적 추구이다.

냉전기 민주주의의 운명을 고심했던 작가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란 민족자결의 정치적 해방이 전제되는 것이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염상섭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주체로 민족이나 집단이 아닌 개인과 개인을 호명하였다. 둘의 결합을 통한 새 살림에 대한 강조는 국가 건설에 대한 비유이기도 할 터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겹겹의 그늘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개인 간의 결합이란 개인의 자유에의 옹호와 연대를 의미하는

71) 제3세계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분석한 장진선의 연구는 소설 속 다양한 여성인물을 억압하는 모순된 구조들로 ‘피식민의식’과 ‘한국형 가부장제’를 꼽으며, 이에 대한 이중해방의 기획으로서 『효풍』을 읽는다.(장진선, 『염상섭 『효풍』의 여성인물에 관한 연구-제3세계 페미니즘적 관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72) 염상섭, 『이중해방(二重解放)』, 앞의 글.

것이며, 이는 염상섭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조선식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생의 주체’⁷³⁾의 관점에서 수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민중과 시민이 소외된 정치적 조건을 극복하고 살림살이의 재구성을 통해 자기 삶을 스스로 변화시키려는 능동적 주체로의 재정립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당위적인 선언의 수준이긴 하지만, 민족 해방에 그치지 않는 인간 해방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의 추구로, 개인의 자각과 해방을 핵심으로 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했던 염상섭의 염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담론들이 폭발했던 해방기에 염상섭이 『효풍』을 통해 탐색했던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규명하였다. 본고는 염상섭의 작가의식과 문학세계를 본질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을 ‘민주주의’로 파악하였다.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절정을 이루던 일본에서 유행했던 염상섭에게 사상과 문학의 지향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그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것이었다. 민주주의는 염상섭 문학의 원형인 3.1운동의 기본 정신이자, 해방기 공론장을 지배한 가장 논쟁적인 개념이었다. 염상섭은 해방 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문제화했다는

73) 박헌호에 의하면 사회주의자들과 다른 염상섭의 면모는 “사회주의자들이 개인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거시적 구조의 개혁, 곧 혁명의 길을 제시했다면 염상섭은 현실 속에서 그 고통을 완화하면서 실질적인 성취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즉 “혁명의 주체가 아니라 생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다.(박헌호, 『염상섭과 ‘조선문인회』, 앞의 논문, 250면.)

개인과 개인이 연대하여 새 살림을 차리는 문제로 귀결되는 『효풍』의 결말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횡보가 이후의 작업에서 이념적인 삶에 대한 탐색보다는 일상적인 사람들의 사랑과 연애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시민의 일상적 삶과 분리되지 않은 개인민주주의 원리의 실천의 문제와도 관련될 터이다.

점에서 『효풍』의 정치성과 윤리성을 고찰하기 위한 틀을 민주주의로 옮김으로써 염상섭의 작가의식과 문학세계에 보다 근접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해방기 서울의 거리가 『효풍』에 어떻게 포착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작가에게 해방기는 국가 건설의 다양한 담론들이 민주적으로 분출되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과 정치활동이 사랑방에서 가두로 진출하지 못하고, 폭력과 테러를 통해 민중이 정치로부터 격리된 어두운 시대였다. 거리에서 환멸을 느끼며 사랑방에 스스로 유폐된 김관식 노인의 형상은 작가의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는 공적 영역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파행적 공론장을 대체하는 공간으로서 구락부나 댄스홀 등에 대한 소설적 탐색을 살펴보았다. 이 소설은 좌우대립의 정치논리에 긴박된 공론장의 모습이 아니라 해방기에 분출했던 민주주의론의 공존 및 경쟁 양상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 그러나 작가는 '민주 경찰'로 대변되는 냉전 민주주의 기구의 감시로 인해 자발적 결사체의 형성이 가로막히는 국면을 예리하게 포착했다. 즉, 개인과 집단의 자유가 제한된 채, 제도적 차원에서 이식된 자유민주주의란 결국 허상에 불과하며, 적대의 논리를 강조한 냉전 민주주의가 개인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파시즘적 통치로 기능하는 점을 폭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말에 제시된 '조선학'의 본질을 구명하고자 했다. 염상섭은 현실과 일상과 유리된 채 이식된 민주주의, 소비자본주의와 접촉해 교양의 과시만 남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었다. 『효풍』에 제시된 '조선학'은 당위적인 선언의 측면이 있지만, 어떠한 독재에도 항거하는 저항의 가치와 함께 통합의 가치를 주장하며 조선의 현실에 맞는 민주주의를 주창했던 신민주주의의 이상과 근거리에 놓인다. 식민지 시기와 해방기에 민족의 독립과 자유라는 집단 민주주의가 강조되면서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는 상대적으로 왜소했던 반면, 다양한 억압기제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개인 간 연대와 자기 삶을 스스로 변화시키려는 의지

를 보여주는 『효풍』의 결론은 개인의 자각과 해방을 핵심으로 한 민주주의의 이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염상섭, 『효풍(曉風)』, 글누림, 2015.
_____,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 전집』 I~III, 소명출판, 2013.
『동아일보』 『자유신문』

2. 단행본

- 김정인,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책과함께, 2017.
문학과사상연구회,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16.
박찬표,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냉전 자유주의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 후마니타스, 2007.
이승원, 『민주주의』, 책세상, 2014.
한상일, 『제국의 시선-일본의 자유주의 지식인 요시노 사쿠조와 조선문제』, 새물결, 2004.
웨일즈, 님·김산, 송영인 역, 『아리랑-조선인 혁명가 김산의 불꽃 같은 삶』, 동녘, 2005.

3. 논문

- 강영훈, 『염상섭 장편소설 『효풍』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권철호, 『『만세전』과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적 정치미학』, 『민족문학사연구』 52, 민족문학사학회, 2013.
김경수, 『혼란된 해방 정국과 정치 의식의 소설화-염상섭의 『효풍(曉風)』론』, 『외국문학』 53, 열음사, 1997.
김기승, 『배성룡의 신형민주주의 국가상』, 『한국사 시민강좌』 17, 일조각, 1995.
김병구, 『염상섭 『효풍』의 탈식민성 연구』, 『비평문학』 33, 한국비평문학회, 2009.
김봉국, 『해방 직후 민주주의 공론장의 안과 밖』, 『감성연구』 16, 전남대학교 호남학 연구원, 2018.
김인식, 『백남운의 연합성 신민주주의와 무계급성 단일민족국가 건설론』, 『중앙사론』 27,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08.
김정인, 『해방 전후 민주주의'들의 변주』, 『개념과 소통』 12, 한림과학원, 2013.
_____, 『민주주의의 눈으로 본 역사학』, 『역사교육』 126, 역사교육연구회, 2013.
_____, 『한국 민주주의 기원의 재구성』, 『기억과 전망』 3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8.
- 김재용, 『분단을 거부한 민족의식-8.15직후 염상섭의 활동과 『효풍』의 문학사적 의미』, 『국어 국문학 연구』 20, 원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999.
- 김중욱, 『해방기 국민국가 수립과 염상섭 소설의 정치성-『효풍』을 중심으로』, 『외국 문학연구』 6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5.
- 류수연, 『응접실, 접객(接客) 공간의 근대화와 소설의 장소 이광수의 『무정』과 『재생』을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11, 춘원연구학회, 2017.
- 박정희, 『『만세전』 개작의 의미 고찰-수선사판 『만세전』(1948)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1, 한국현대문학회, 2010.
- 박지영, 『복수의 '민주주의'들-해방기 인민(시민), 군중(대중) 개념 번역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 박현호, 『염상섭과 '조선문인회』, 『한국문학연구』 43,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2.
- 서준섭, 『염상섭의 『효풍』에 나타난 정부 수립 직전의 사회, 문화적 풍경과 그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28, 한중인문학회, 2009.
- 서형범, 『염상섭 『효풍(曉風)』의 중도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찰』, 『한국학보』 30-2, 일지사, 2004.
- 손유경, 『1930년대 다방과 '문사'의 자의식』, 『한국현대문학연구』 12, 한국현대문학회, 2002.
- 안서현, 『『효풍』이 붙지 않는 곳-염상섭의 『무풍대』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9, 한국현대문학회, 2013.
- 안외순, 『해방공간(1945-1948) '조선적 맑스주의자' 백남운의 '연합성 신민주주의론'과 자유주의』, 『동양고전연구』 28, 동양고전학회, 2007.
- 양근애, 『해방기 연극, 기념과 기억의 정치적 퍼포먼스-3.1운동 관련 연극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 이경민, 『염상섭의 자기혁명과 초기 문학』, 『민족문학사연구』 60, 민족문학사학회 · 민족문학사연구소, 2016.
- 이상록, 『1960~7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의 민주주의 담론』, 『역사와 현실』 77, 한국역사연구회, 2010.
- 이양숙, 『트랜스모던 공간으로서의 서울, 1948년 염상섭 『효풍』의 현대적 의미』, 『도시인문학연구』 10-1,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8.
- 이윤갑, 『안재홍의 근대 민족주의론 비판과 신민족주의』, 『한국학논집』 5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4.
- 이정석,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자의 정치학-이효석의 『공상구락부』와 최인훈의 『GREY』

- 구락부 전말기』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8, 우리어문학회, 2014.
- 이종호, 『일제시대 아나키즘 문학 형성 연구-『근대사조』 『삼광』 『폐허』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_____, 『염상섭 문학과 사상의 장소-초기 단행본 발간과 그 맥락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6, 한민족문화학회, 2014.
- _____, 『염상섭 문학의 대안근대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이혜령, 『감옥 혹은 부재의 시간들-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자를 재현한다는 것, 그 가능성의 조건』, 『대동문화연구』 6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 장세진, 『재현의 사각지대 혹은 해방기 '중간파'의 행방』,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2017.
- 장진선, 『염상섭 『효풍』의 여성인물에 관한 연구-제3세계 페미니즘적 관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정소영, 『해방 이후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정중현, 『3.1운동 표상의 문화정치학-해방기~대한민국 건국기의 3.1운동 표상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3, 한민족문화학회, 2007.
- _____, 『195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정치와 윤리-『젊은 세대』,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62, 동악어문학회, 2014.
- 조형래, 『『효풍』과 소설의 경찰적 기능-염상섭의 『효풍』 연구』, 『사이間SAI』 3,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7.
- 최인숙, 『염상섭 문학의 개인주의』,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한기형,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 수용과 탈식민적 태도-잡지 『삼광』에 실린 염상섭 자료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43, 한민족어문학회, 2003.
- _____, 『노블과 식민지-염상섭 소설의 통속과 반통속』, 『대동문화연구』 8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 황종연, 『플로베르, 염상섭, 문학정치-한국 근대문학에 대한 랑시에르적 사유의 시도』, 『한국현대문학연구』 47, 한국현대문학학회, 2015.

<Abstract>

『Cold Wind at Dawn(Hyopung, 曉風)』
and the landscape of liberation democracies
—A Study on Yeom Sang-seob’s 『Cold Wind at Dawn(Hyopung,
曉風)』

YE HYUN YOO

This writing is to investigate how Yeom Sang-seob has defined democracy through his novel during Liberation Period, where passion and discussion on liberation has exploded. Yeom Sang-seob’s passion for democracy aiming in literature and thoughts penetrated his entire life during his study abroad in Japan when Taisho Democracy was in its’ peak period. This writing is to approach Yeom Sang-seob’s consciousness as an author and his literary world by transferring the framework for examining the political and ethical nature of 『Cold Wind at Dawn(Hyopung, 曉風)』 to the democracy concept as Yeom Sang-seob continuously made democracy as an issue even after being liberated.

The author described the liberation as the dark era because the social movement and the political activities had to be closed in the guest rooms and the public was separated from politics using violence and terror even though liberation was the perfect period for speaking up democratic discussion. The old man shape of Kim, Kwan-sik, who became disillusioned and chose to stick in the guest room, displayed this awareness as a symbol.

『Cold Wind at Dawn(Hyopung, 曉風)』 reveals the fictional search on clubs and dance halls that replaced the crippled operation of public sphere

where there is no public space for political freedom. Through this process, the public space showed the competition aspect of numerous democratic theories exposed in liberation rather than public sphere with tension due to antagonism between the right and left side conflict in politics. However, the author captured the situation where the voluntary association could not be grasped due to the inspection and system of Cold War democracy just like surveillance of ‘democratic police’.

Yeom Sang-seob criticized distorted and cultured ostentatious democracy which is far away from the people’s life. Chosun studies (Chosunhak, 朝鮮學) which was mentioned by 『Cold Wind at Dawn(Hyopung, 曉風)』 emphasized the value of consolidation with the value of resistance for any dictatorship, and it gave a wide berth to the ideal new democracy which advocated democracy which fits with the people’s reality.

Key words: Yeom Sang-seob, Cold Wind at Dawn(Hyopung, 曉風), Democracy, New Democracy, Liberation Period, Club(Gurakbu, 俱樂部), Chosun studies(Chosunhak, 朝鮮學)

투 고 일 : 2019년 5월 15일

심 사 일 : 2019년 5월 20일-6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9년 6월 12일

수정마감일 : 2019년 9월 26일